

일본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 헬프 제도의 역사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사소 토모히사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키리하라 나오유키

□ Introduction(들어가며)

(번역자:신주형)

본 보고에서는 2000년대 일본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 헬프 서비스의 역사 대해 밝히고자 한다. 1999년 시범적 사업으로서 실시되어 2002년 제도화 된 정신장애인 홈 헬퍼 제도가 2006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거택개호·행동지원 서비스에 흡수 될 때까지의 역사적 연속성·비연속성에 주목하였다. 일본 국내에서 한국의 홈 헬프 제도에 관한 연구는 2008년 한국에서 개호 보험 제도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주목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의 개호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정신장애인 분야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다. 이 영역에서는 최근 지역이행형 병상(地域移行型病床)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역 생활과 관련하여 지원의 중심적 역할로 기대를 받고 있는 홈 헬퍼 제도의 역사를 해외에 발신하는 것은 일본의 정신장애인 정책을 발신하고 또 자아 비판이 가능하며 향후 시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 Method(목적 및 방법)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 헬프 제도의 역사를 정리·검토하는 것에 있다. 방법은 문헌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자료에는 후생노동부 등의 정부 간행물,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 전국 정신 장애인 가족 연합회 등 계 단체 자료, 1999년 시범적 사업으로서 실시되었던 시기·2006년 장애인 자립 지원법 시행 시점에서 각각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헌들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 향후 정신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신장애인의 지역 생활 안에서의 홈 헬퍼 서비스 및 그 주역이 되는 헬퍼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Research(조사결과)

■ 제도 변천사 연표

년월일	사유
1993년8월9일	호소카와·모리히로(細川護熙)내각 출범 →「시설」에서「지역」으로, 국민복지세 구상
1993년12월	장애인기본법 성립→정신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됨
1994년8월10일	공중위생심의회「당면 정신보건대책에 관하여」에서, 사회복귀시설에서 지역 사회로의 방향성이 제시됨
1995년12월18일	장애인시책추진본부「장애인플랜 노멀라이제이션 7개년 전략」 →정신장애인의 특성 배려, 인력(맨파워)으로써의 헬퍼가 기술됨 「홈 헬퍼를 충실하게」를 정책목표로(단, 정신장애인은 대상 외)
	—이때까지, 중의원·참의원(상원 및 하원)에서 사회복귀시설 확충의 낙후가 빈번히 지적됨—
1997년11월19일	참의원 재무 행정 개혁, 세제 등에 관한 특별 위원회 →니시야마 도키코(西山登紀子)의원(당시)가 헬프 제도의 미비에 대해 언급 재택 정신장애인 75만 명의 존재·정신장애인 대상화 요망의 필요성도 알림
1998년12월7일	공중 위생 심의회 정신 보건 복지부회「정신 보건 복지 법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 보고서」 →다른 장애인 시책과 동등한 시책의 필요성 제언
1999년1월14일	공중 위생 심의회 정신 보건 복지부회「향후 정신 보건 복지 시책에 대해서」 →정신장애인 방문 개호 사업(홈 헬프 서비스)의 제언
2002년	시범사업의 실시 정신보건복지법 개정 →사업으로 정신장애인 방문 개호 사업(홈 헬프 서비스)의 제언이 신설됨
2003년~	도쿄(「코라루·타이도우」, 「아케보 회」등의 이용자 네트워크), 오사카(정신장애인 지원 모임HIT에서는 정신장애인이 헬퍼가 되는 동료 헬퍼를 실시)
2005년10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립 →세 장애 통합에 의한「주택 개호」, 「행동 지원」등으로 계승 →궁극적으로는 개호 보험으로 통합하는 방향 확인

□ Discussion(고찰)

정신장애인 방문 개호 사업은 호소카와 내각 이후 「시설」에서「지역」노선이 추진되었으나, 그 핵심을 담당하는 사회 복귀 시설 등의 준비가 현저히 낙후하였다는 것, 장애 복지 행정의 장애인 범위에 정신 장애를 포함하면서 부상된 「다른 장애와 동등한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정신장애인 복지를 제언한 민간 액터(행위주체자)인 「전국 정신장애인 가족회 연합회 보건 복지 연구소의 제언」 이와 같은 4가지 요소에 의해 성립된 것이다.

초기 스타일은 「통원 환자의 복용 관리」 「지켜 보기(미마모리)」와 같은 계속적인 치료의 보조, 일탈 행동의 방지를 위한 색채가 강했다. 그러나 자립지원법 이후에는 관망이 행동 지원으로 인계되어 거택 개호에 있어서는 가사 원조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는 서비스로서의 측면이 강해졌다.

개호 보험과의 통합 관계, 초로기 인지증의 정신 보건 대책, 노인 보건 영역에서 확인된 정신 질환을 가진 재택 노인 문제 등 노인 보건과 정신 보건의 교차 부분과 관련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미타 유코(三田優子), 타이라 나오코(平直子), 오카 시오리(岡伊織), 2004, 『마음에 와 닿는 홈 헬프』 전국 정신 장애인 가족회 연합회. ◆오오시마 이와오(大島巖), 타이라 나오코(平直子), 오카가미 가즈오(岡上和雄), 2001, 『정신장애인의 홈 헬프 서비스—그 니즈와 전망』 중앙 법규. ◆정신보건복지연구회, 2000,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복지—헤이세이12년도 판』. ◆정신보건복지연구회, 2001,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복지—헤이세이13년도 판』. ◆정신보건복지연구회, 2002,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복지—헤이세이14년도 판』.